

## 광주 관문 송정역 “지역 특산품 보기 힘드네”

광주 주먹밥 스낵·영광 모싯잎 송편·진도 홍주 뿐  
 중소기업 상설판매장 입점 지역 기업도 단 한 곳

“광주에서 전주 특산품이 더 눈에 띄네요”  
 2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내 편  
 의점 입구에 마련된 지역특산품 매대.  
 전주 초코파이, 전주 이강주, 전주 모주 등  
 전북 전주의 특산품들이 협소한 매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물용으로 포장된 이강주는 편의점을 오  
 가는 승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승객은 이강주가 담긴 도자기 병을 한  
 참 바라보더니 함께 온 지인과 “사갈까”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어린 승객들은 매대 선반 대부분과 유리벽  
 안쪽까지 진열된 초코파이를 보고 부모에게  
 사달라며 조르기도 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특산품은 매대 한 칸  
 으로 밀려나 있었다.  
 매대에 진열된 광주·전남의 특산품은 ‘광  
 주 주먹밥 스낵’과 ‘진도 홍주’ 단 2종 뿐.  
 이따금 홍주의 붉은 빛을 훑어저려 바라보  
 는 승객이 있었지만 두 제품 모두 구매하는  
 승객은 없었다.  
 건너편에는 영광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을  
 파는 매대가 있었지만 승객들의 발걸음이 뜸

하기는 마찬가지.  
 광주·전남 특산품의 부재는 대합실 내 전  
 국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처인 ‘중소기업 명  
 품마루’에서도 이어졌다. 전국 수 십여 개 중  
 소기업 물품이 진열된 이곳에 입점한 광주·  
 전남 출신 기업은 단 한 곳 뿐.  
 광주 동구 소재 A 건강음료 생산 전문 업  
 체의 찹쌀떡 3종과 기능성 베게 1종만이 판  
 매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전국의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모아 진열하  
 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것만 판매하지는 않  
 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민들은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에  
 지역 특산품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  
 다.  
 지역민 최모(55·여)씨는 “광주에 있는 기  
 차역에서 광주·전남 특산품이 전주의 특산  
 품에 밀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만약 과일 등 신선 식품 진열이 어렵다면  
 주류나 가공식품 위주 특산품을 적극 발굴해  
 소개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역사 내 지역특산품 유통을 담당하는 코레  
 일유통㈜ 호남본부 관계자는 시장성을 고려



2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대합실 편의점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한 승객이 진열된 지역 특산품을 바라보고 있다.

해 지역특산품의 판매 비중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본부의 관할지는 광  
 주와 전남·전북에 이른다. 이 지역 가운데서  
 도 시장성이 높고 평가되는 제품들을 발  
 굴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자들과  
 협의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송정역이 협소해 별도 지역특

산물 상설 판매장을 들여놓을 수 없어 안타  
 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역사 증  
 축안이 가시화될 경우 특산품 전용 상설매  
 장을 새로 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질 좋고 명성이 자자한 지역특산  
 품을 선보이기 위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광주전남고속도로 사망사고 올해 6건 중 4건 화물차량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불법계조 단속

광주와 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6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화물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  
 르면 2022년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총 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전체의  
 67%인 4건이 화물차량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지난해 3건에 비해  
 100% 증가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통게이  
 트 등 주요지점에서 불법차량 집중 단속을 벌  
 인 결과 381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하반기에 추석 연휴 등으  
 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차  
 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차량 판스프링 불법계조, 교통  
 안전장치 미설치·미작동, 자동차관리법을 위  
 반해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  
 는 불법튜닝 차량 등이다.  
 화물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  
 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운  
 행할 경우 법령에 따라 단속한다.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증가추세 전남도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 조치하  
 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에,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들은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징수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추세  
 다.  
 이에 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하  
 고, 이중 압류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000여만원의 압류를 실시했다.  
 보험금을 압류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  
 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장...김진표 “尹에 감사”

경호처 “前대통령 경호 강화 필요해”  
 오늘 0시부터 효력 발생...위험물 탐지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  
 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  
 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  
 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

서 최대 300m까지 확장됐다.  
 대통령실은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  
 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태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  
 을 호소하던 것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  
 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  
 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평산마을의 1인 시위가 (사저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  
 심을 갖고 경호처장에 현장 상황 파악을 지시  
 해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  
 혀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시법상 1인 시위  
 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 경호구역이  
 현재 100m다. 경호구역 범위가 너무 가깝다

김재환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